

치과대학생의 직업가치

김 동 기¹⁾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이 영 희²⁾

첨단치과의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

이 연구는 치과 대학생들이 치과의사직에 대하여 상대적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직업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치과대학생의 직업윤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2007년 1학기 조선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270명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유효한 설문지 217부가 분석되었다. 설문지는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5개 직업가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연구 결과, 치과대학생들은 치과의사직에 대하여 자율성의 가치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 근무환경, 자기실현의 가치 순으로 기대하였다. 자율성의 가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자기실현의 가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학년 집단은 평균적으로 저학년집단에 비해 자기실현의 가치가 높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다. 졸업 후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치과개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자기실현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치과대학생들은 치과의사직에 대해 자기실현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자율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치과대학생의 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직업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직업가치, 일가치, 치과대학생, 전문직업성, 직업윤리교육

1)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2)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첨단치과의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 연구교수 (E-mail : future67@hanmail.net)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며 자아실현을 이루어낸다. 직업 없이는 사회생활이 지극히 제한되고, 사회적 기여를 달성하기도 힘들다. 또한 일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유의미감을 느끼며,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정당화시키고, 권력과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Borg, 1996).

직업가치는 문화, 사회, 그리고 인성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며(Dose, 1997; Wood, 1981), 전공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org(1966)는 직업선택 과정에서 직업 가치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어떤 일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 뿐 아니라 그 일이 제공하는 보상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적 보상 측면을 가장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도움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흥미로운 경험’을, 남성은 ‘안정성’과 ‘독립성’을 중요한 직업가치로 들었다.

Carruther(1968)는 전공에 따라 직업가치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시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기와 타인을 돕기와 같은 것을 덜 중시하였다. 이현주(2004)는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방식’과 ‘경제적 보상’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 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직업가치는 직업활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추구하는가와 직업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직업 전문성 의식과도 연결된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의사들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직업 기준을 가지고 있고, 힘든 수련과정을 통하여 치과의사로서의 가치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집단 특유의 직업의식을 발전시켜오고 있음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직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직업적 전문성 의식 발달 과정은 치과대학생, 전공의, 공직의 및 개원의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대학생의 치과의사직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치과의사상과 바람직한 전문직업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윤리는 하나의 가치체계이고 개인이 윤리적,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기준이 가치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치과대학생의 올바른 직업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가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직업가치 교육의 필요성은 가치의 기능에 비추어볼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Rokeach(1973)는 가치의 기능을 다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가치는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기준이 되고, 둘째, 가치는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인간의

동기를 유발케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가치의 기능에 비추어보면 치과의사의 직업가치는 자신의 행동은 물론 환자의 행동을 지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진료상황이나 병원 장면에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 의사와 보호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의사의 직업가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를 유발케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직업가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공의 또는 개원의 직업만족도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었을 뿐(김문조, 1989; 박종연, 1993; 조병희, 1994; 정성화외, 2002; 정선화외, 2003), 치과대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이 될 치과의사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직업성 교육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의·치과대학생 직업 가치의 기본구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직업윤리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치과대학생들이 어떤 직업적 가치관을 가지고 치과의사직을 선택하게 되는지, 직업가치의 요인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업가치와 의료윤리는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시도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치과대학생들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가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치과대학생의 직업윤리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치과대학생이 치과의사직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둘째, 치과대학생의 직업가치의 순위는 학생의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직업가치의 우선순위는 전공만족도, 치과대학 입학 후 치과의사직에 대해 가지게 된 회의감, 성격 적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직업가치의 순위는 생계수단으로서 치과의사직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와 희망진로, 재진학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07년 1학기 조선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270명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치의학과 1학년 7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초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같은 요인으로 묶기 어려운 문항은 삭제하거나 문항 표현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3월 10일부터 4월까지 강의시간 중에 예비조사 대상 학생을 포함한 1,2,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강의가 끝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270명 중에서 230개(85.1%)였고, 이 중에서 유효한 설문지 총 217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성별 표본 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학년별 성별 분포

단위: 명(%)

학년 \ 성별	남	여	계
1학년	58(40.6)	21(28.4)	79(36.4)
2학년	21(9.7)	3(1.4)	24(11.1)
3학년	31(14.3)	23(10.6)	54(24.9)
4학년	33(15.2)	27(12.4)	60(27.6)
계	143(100.0)	74(100.0)	217(100.0)

2. 용어의 정의

직업 가치라는 용어는 ‘직업 윤리’에서 ‘일에 대한 선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된다(Dose, 1997). 어떤 연구자는 직업 가치의 핵심을 선호에 두고 있고(Pryor, 1981), 욕구에 두기도 하며(Super, 1973), 윤리체계에 두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치 연구자들은 가치가 목표를 선택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표준이자 기준이며,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Dose, 1997: 220). Dose(1997)는 직업 가치에 관한 연구물을 종합하여 직업가치의 구조를 선호와 도덕, 사회적 합의와 개인적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직업가치의 개념이 다차원적 구성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또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단순한 선호’라는 의미로 한정하였다.

3. 조사도구 및 척도

이 연구에 사용된 직업가치 설문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직업가치 관련 선행

연구(이현주, 2004¹⁾; 이영식, 1985; Borg, 1996²⁾; Pryor, 1980; Super, 1957; Kirkpatrick & Glen, 2002; Ginzberg, 1951; Rosenberg, 1957; Carruthers, 1968³⁾)를 치과대학생의 수준에 맞게 1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최종 설문문에 사용된 문항은 일 자체의 재미, 일에 대한 도전감, 창의성 발휘, 내가 가진 능력 발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사회적 영향력, 명예·권위, 사회와 시민에 대한 기여, 존경, 높은 수입, 직업안정성, 장래성, 독립성, 자율성, 쾌적한 근무환경, 생활시간이었다. 이 중에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장래성, 독립성, 자율성, 생활시간의 변인은 연구자가 임의로

- 1) 이현주(2004)는 Purdue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인 자기평가지(Self-Evaluation)의 직업가치척도 중에서 이타성, 예술성, 창의성, 지적 자극, 성취감, 독립성, 명예, 경영, 경제적 보상, 안정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협력관계, 생활방식, 다양성의 15개 척도를 활용하였다.
- 2) Borg(1996)은 의료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요인으로 직업안정성, 돈, 타인에 대한 봉사, 흥미로운 경험,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 독립성, 자긍심, 권력 등을 꼽았다.
- 3) Carruthers(1968)은 지적 자극, 창조성, 관리권, 성취감, 환경, 감독관계, 안전성, 사교성, 심미성, 권위, 독립성, 다양성, 경제적 보상, 이타주의의 15개 척도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장래성은 ‘장차 성공하거나 크게 잘 될 가능성’으로, 독립성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속박되지 않고 직업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으로, 자율성은 ‘나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음’으로, 생활시간은 ‘일과 여가시간의 비율’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16개 문항 중 성질이 같은 문항을 같은 요인으로 묶고 각 요인별 상호독립성을 확인하였고,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방

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각 변수의 고유값(eigen value)은 1이상인 요인만을 선정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5를 기준으로 그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요인의 행렬은 직각회전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총 5개의 직업가치 변인이 수렴되었다. 이 중에서 요인Ⅰ은 자기실현, 요인Ⅱ는 사회적 가치, 요인Ⅲ은 경제적 안정, 요인Ⅳ는 자율성, 요인Ⅴ는 근무환경의 변인명을 부여하였는바,

표 2. 직업가치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일 자체의 재미	.583	.128	-.063	-.089	.441	.775
일에 대한 도전감	.826	.133	-.017	-.031	.030	
창의성 발휘	.731	.011	-.076	.094	.075	
내가 가진 능력 발휘	.700	.099	.243	.216	.129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	.622	.218	.192	.154	-.022	
사회적 영향력	.088	.808	.233	.128	-.066	.804
명예, 권위	.015	.816	.328	.044	-.017	
사회와 시민에 대한 기여	.281	.579	-.079	.061	.159	
존경	.147	.831	.115	-.067	.186	
높은 수입	-.042	.218	.774	.103	.156	
직업 안정성	-.060	.135	.752	.213	.172	.607
성공가능성	.319	.123	.682	-.061	.021	.755
독립성	.116	.052	.162	.870	.012	
자율성	.136	.058	.042	.818	.351	
쾌적한 근무환경	.234	.190	.165	.222	.692	
일과 여가시간의 조화	.016	-.002	.187	.124	.830	
계	2.735	2.558	2.008	1.666	1.628	.621
요인적재값 설명력(%)	17.094	15.991	12.547	10.413	10.177	

5개 요인의 총설명력은 66.2%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07에서 .804까지 걸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렇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통계 프로그램은 SPSSWIN 12.0을 사용하였다. 직업가치 변인이 학생의 성별, 학년별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적성, 졸업 후 희망진로, 재진학 의사 등의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와 5개 직업가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독립변인 중 학년별 변인은 임상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접하는 3학년을 기준으로 1, 2학년은 저학년으로, 3, 4학년은 고학년으로 이분하여 분석하였다. 성격적성 변인은 치과의사직이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하여 ‘부합함’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치과의사직에

대한 회의감은 치과대학 입학 후 회의가 ‘많았다’, ‘그저 그렇다’, ‘없었다’의 3개 척도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치과대학생의 치과의사직에 대한 가치

치과대학생은 치과의사로서의 직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추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5개의 직업가치 중에서 자율성의 가치에 대한 응답이 평균 3.4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안정의 평균이 3.29, 근무환경의 평균이 3.22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자기실현의 가치가 3.09, 사회적 가치의 평균이 2.9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5가지의 가치 요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4점 척도의 이론적 평균값인 2.0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치과대학생들은 치과의사직에 대해 5개 직업가치를 모두 크게 또는 평균 이상으로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치과대학생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속박되지 않고 직업생활을 영위 할 수 있음과 자신의 원칙과 통제에 따라 일할 수 있

표 3. 치과대학생의 치과의사직에 대한 가치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자기실현	217	3.09	.49
사회적 가치	217	2.91	.56
경제적 안정	217	3.29	.48
자율성	217	3.45	.56
근무환경	217	3.22	.65

는 자율성의 가치를 치과의사직에 대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존경과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직의 전문직업적 특성 중에 하나인 자율적 통제의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남녀별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직업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기실현과 자율성의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자기실현의 가치는 남학생 평균 3.04보다 여학생의 평균이 3.24로 높았고, 자율성의 가치는 여학생 평균 3.34보다 남학생 평균이 3.51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

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치과의사로서의 일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에 대한 도전감도 더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직을 수행하면서 창의성과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자기실현의 가치가, 남학생은 자율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자율적 독립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여성은 종속적 수동적 가치를 내면화시키도록 한 전통적 성역할 가치 규범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년별

학년에 따라서는 자기실현의 가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에서 보면 3, 4학년의 평균이 3.18로 1, 2학년 평균 3.0보다 높아서 고학년이 치과의사직을 통해 자기

표 4. 남녀별 직업가치의 차이

요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남	143	3.04	.51	-2.49*
	여	74	3.24	.43	
사회적 가치	남	143	2.94	.57	-.12
	여	74	2.94	.52	
경제적 안정	남	143	3.24	.48	-.06
	여	74	3.29	.48	
자율성	남	143	3.51	.55	2.08*
	여	74	3.34	.57	
근무 조건	남	143	3.21	.64	-.25
	여	74	3.24	.66	

*p< .05

표 5. 학년별 직업가치의 차이

요인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1, 2학년	103	3.00	.54	-2.80**
	3, 4학년	114	3.18	.42	
사회적 가치	1, 2학년	103	2.96	.60	1.29
	3, 4학년	114	2.87	.51	
경제적 안정	1, 2학년	103	3.30	.52	.41
	3, 4학년	114	3.28	.44	
자율성	1, 2학년	103	3.49	.59	.78
	3, 4학년	114	3.43	.53	
근무환경	1, 2학년	103	3.22	.67	.06
	3, 4학년	114	3.22	.63	

** p<.01

실현의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율성의 가치는 3,4학년보다 1,2학년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저학년들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안정과 같은 직업의 수단적 가치에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고학년은 자기실현의 가치라는 내적 가치를 높게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가치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사례중심 또는 체험 위주의 전문직업성 교육과 지역사회봉사, 의료윤리 등의 인문사회학적 교육과정을 강화

함으로써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직업가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3. 전공만족도, 치과의사직에 대한 회의 및 성격 적성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전공만족도

현재 자신의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 64명, ‘어느 정도 만족’ 122명, ‘보통’ 22명, ‘별로 만족 못함’이 8명, ‘전혀 만족 못함’이 1명이었다. 이 중에서 중립적인 보통 응답을 제외하고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자와 별로 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표 6.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의 상관관계

요인	자기실현	사회적 가치	경제적 안정	자율성	근무환경
전공만족	.433**	.228**	.191**	.169*	.282**

표 안의 수는 Pearson 상관계수이며, ** 상관은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 상관은 0.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는 부정적 응답자의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면 만족이 186명인 반면, 불만족은 9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만족과 불만족의 두 집단으로 구별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자아실현의 가치와 전공만족도는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전공만족도와 근무환경은 약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와 경제적 안정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치과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치과의사직에 대한 경제적 안정의 기대가 함께 상승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치과의사직에 대한 회의

치과대학에 입학한 뒤로 치과의사직에 대해 회의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았다 64명, 그저그렇다 122명, 없었다 2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립적 응답을 제외하고 긍정적 응답자와 부정적 응답자 간에 직업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자기실현과 근무환경에 대한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사직에 회의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반대의 경우보다 자기실현에 대한 기대가 더 컸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 대한 기대도 더 컸다. 자율성의 가치에서 치과의사직에 회의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기대를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치과의사직에 회의를 가져본 학생일수록 치과의사직을 통한 직업적 자아실현 가

표 7. 치과의사직에 대한 회의감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요인	치과의사직에 대한 회의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없었음	64	3.20	.45	3.14**
	있었음	21	2.82	.58	
사회적 가치	없었음	64	3.02	.61	1.88
	있었음	21	2.71	.72	
경제적 안정	없었음	64	3.42	.44	1.25
	있었음	21	3.24	.61	
자율성	없었음	64	3.38	.60	-.60
	있었음	21	3.48	.68	
근무환경	없었음	64	3.27	.60	2.01*
	있었음	21	2.83	.93	

* $p < .05$ ** $p < .01$

능성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본 전공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즉, 전공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9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치과의사직에 회의를 느껴 본 학생은 21명으로 훨씬 많았다. 반대로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186명에 비해, 치과의사직에 회의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64명으로 현저히 적었다. 반면 회의감에 대해 그저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을 보인 학생들은 122명으로 전공만족도가 보통이었던 22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과대학생들이 대학교육 기간 동안 치과의사직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치과의사

직의 정체성과 치과의료직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장차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직업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격 적성

치과의사직이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5개의 직업가치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치과의사직이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실현, 사회적 가치, 경제적 안정, 자율성 및 근무환경의 직업가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들이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 성공을 예측하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Smithers, Catana & Cunningham, 2004), 직업 가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표 8. 치과의사직의 성격적성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요인	성격 적성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부합함	103	3.26	.446	4.54***
	부합안함	18	2.58	.619	
사회적 가치	부합함	103	3.03	.52	3.44***
	부합안함	18	2.56	.67	
경제적 안정	부합함	103	3.40	.4775	3.53***
	부합안함	18	2.98	.47	
자율성	부합함	103	3.51	.57	2.13*
	부합안함	18	3.19	.67	
근무환경	부합함	103	3.39	.56	3.09**
	부합안함	18	2.75	.85	

* p<.05 ** p<.01 *** p<.001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성격적성의 측정은 자기 평가 형식의 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성격유형 별 직업가치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표준화된 성격유형 측정도구에 의하여 직업가치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직업 세계에서 각자의 성격이 가진 강점을 발휘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태도 교육 프로그램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4. 생계 수단으로서의 치과의사직, 희망진로 및 재진학의사에 따른 직업 가치의 차이

생계수단으로서의 치과의사직

장차 먹고 살 걱정을 안 할 때도 치과의사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62명으로 전체의 28.6%였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학생은 155명으로 전체의 71.4%였다. 생계를 목적으로 치과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들 간에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어도 치과의사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자율성 평균이 3.21로 다른 직업을 택하겠다는 학생들의 평균 3.0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경제적 안정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더 낮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치과의사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국 생계와 관계없이 치과의사직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5개 직업가치가 모두 높아서 직업으로서 치과의사직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생계수단으로서의 치과의사직에 대한 직업가치의 차이

요인	희망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치과의사	62	3.21	.42	2.15*
	다른 직업	155	3.05	.50	
사회적 가치	치과의사	62	2.98	.62	1.13
	다른 직업	155	2.89	.53	
경제적 안정	치과의사	62	3.35	.47	1.15
	다른 직업	155	3.27	.48	
자율성	치과의사	62	3.52	.48	1.27
	다른 직업	155	3.43	.59	
근무환경	치과의사	62	3.32	.58	1.46
	다른 직업	155	3.18	.67	

* $p < .05$

표 10.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요인	졸업후 희망진로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치과 개업	67	2.97	.42	-3.87***
	연수과정 밟음	73	3.25	.43	
사회적 가치	치과 개업	67	2.83	.58	-2.36*
	연수과정 밟음	73	3.05	.52	
경제적 안정	치과 개업	67	3.29	.51	-1.02
	연수과정 밟음	73	3.37	.43	
자율성	치과 개업	67	3.59	.52	2.02*
	연수과정 밟음	73	3.40	.56	
근무환경	치과 개업	67	3.23	.59	-.59
	연수과정 밟음	73	3.29	.67	

* $p < .05$ *** $p < .001$

희망진로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서는 자기실현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에서와 같이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치과병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련과정을 밟고자 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율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자기실현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수련과정을 밟고자 하는 학생들은 직업을 통해 자기실현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자율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개업의가 되는 졸업생이 절대 다수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졸업 후 개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가치교육 면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즉 졸업 후 연수과정없

이 개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재학기간 중에 일반의로서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달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가치교육도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재진학 의사

대학을 다시 간다고 해도 치과대학을 진학하고 싶다고 답한 학생은 104명인 47.9%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113명으로 52.1%로 다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이들 간에 치과의사직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가치와 근무환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에서와 같이 치과대학을 다시 가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 학생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학생들보다 치과의사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대가 더 컸고,

표 11. 치과대학에의 재진학 의사

요인	재입학 의사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실현	하겠다	104	3.15	.47	1.62
	안하겠다	113	3.04	.51	
사회적 가치	하겠다	104	3.03	.56	3.02**
	안하겠다	113	2.81	.53	
경제적 안정	하겠다	104	3.34	.47	1.56
	안하겠다	113	3.24	.49	
자율성	하겠다	104	3.50	.56	1.28
	안하겠다	113	3.41	.56	
근무환경	하겠다	104	3.37	.56	3.33***
	안하겠다	113	3.08	.69	

** p<.01 *** p<.001

치과의사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대학에의 재진학 의사는 치과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임을 고려해 볼 때 치과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의사직에 대한 직업적 기대감도 함께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교육과정 개선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치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치과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그들이 종사하게 될 직업가치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IV. 결 론

가치는 목표를 선택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표준이자 기준이며,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것이다(Dose, 1997: 221).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보면 직업가치는 직업세계에서 행동을 지도하는 기준이며, 동기를 유발하고, 직업적 의사결정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치과대학생들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가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치과대학생의 직업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치과대학생은 치과의사직에 대해 대체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로서의 직업 활동을 통해 자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컸으며, 경제적 안정, 근무환경, 자기실현, 사회적 가치의 실현 순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자율성의 가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자율성의 가치가 높았다. 셋째, 전공만족도가 높은 집단, 치과대학 입학 후 치과의사직에 회의감을 가지지 않은 집단, 치과의사직에 성격적성이 잘 맞는다고 인식한 학생집단이 5가지 직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생계수단으로서 치과의사직을 선택했는지의 여부와 희망진로, 재진학 의사에 따라서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어도 치과의사직을 선택하겠다는 집단의 자율성 평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고, 치과병원 개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율성의 가치가, 수련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기실현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과의사의 자율성의 가치에 대한 높은 기대는 의료전문직에 부수되는 자율적 통제 특성까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에 어울리는 권위와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 집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치과의사의 자율성에 대한 높은 기대는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연구에서 자율성은 의사 자신의 원칙과 통제에 따라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과거에 비해 요즘의 환자들은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여 의사에게 절대복종하지 않으며, 의사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조병희, 1994:39). 이러한 환자 불복종은 자율성의 직업가치에 대한 기대와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의사들의 직업적 불만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의사가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수립한 의료 원칙에 입각하여 진료실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점증하는 환자의 권리가 이러한 의사의 기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전문 직업적 자율성의 본질적 의미와 행사 범위, 그리고 환자 소비자 주권과의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성의 가치는 사회 환경 변화와 여러 이익집단과의 연관성 속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일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회구성원과의 결속, 귀속감, 참여의식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치과대학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았다는 점은 미래 사회가 의료전문인의 사회적 기여와 지역사회 참여를 크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는 치과대학생이 치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 및 시민에 대한 기여, 그리고 사회적 존경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에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가치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아실현의 가치와 같은 직무 내적 가치보다 경제적 안정과 근무환경과 같은 직무외적 요인에의 가치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실

현의 가치는 직무 외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한 변화의 폭이 적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대학교육 기간 동안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형성되는 가치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와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치과대학에서의 교육은 장차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전문의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에 맞게 잘 짜여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의사의 직업윤리 및 가치교육을 심도깊게 연구하고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외국과 달리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의사윤리’라는 이름으로 직업윤리와 직무 책임이 가르쳐져 왔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치과 의료의 중요성과 치과의사의 사회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사의 올바른 직업윤리의 정립과 그 실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올바른 직업윤리의 정립을 위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직업가치가 발달, 형성, 고착화되는 대학교육 기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Kirkpatrick, J. M. & Glen(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고교 졸업 이후 직업가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타적,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는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치과 의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전문직

으로서 치과의사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치과대학생의 치과의사직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고 앞으로 직업 가치교육 및 직업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생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치과대학 전체 학생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또한 독립변인의 측정이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으로 이루어져 변인에 대한 해석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측정상의 문제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가치의 개념을 단순한 선호에만 한정하여 당위적 차원의 도덕적 가치로서의 직업가치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가치의 개념까지 확장한 깊이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치과대학 교육과정 속에 직업가치 교육의 구체적인 지도방안이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문조 (1989). 한국 의사들의 직업의식, 현상과 인식, 13(1), 26-52.
- 박종연 (1993).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7, 219-244.
- 이영식 (1985). 대학생의 직업가치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3, 1037-1056.
- 이현주 (2004). 개인적 배경과 직업가치, 일의 동기적 지향이 직업선택 확신에 미치는

- 영향. *교육심리연구*, 18(2), 17-33.
- 정성화, 박진호, 김지영, 최연희, 송근배 (2002). 한국 개원치과의사들의 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6(4), 567-578.
- 정성화, 안상현, 홍숙선, 최연희, 송근배 (2003). 우리나라 치과전공의들의 직무만족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7(3), 447-458.
- 정재균, 송근배 (1997). 대구광역시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1(4), 633-648.
- 조병희 (1994). 개업의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 연구. *한국사회학*, 28, 37-64.
- Blau, P. et al (1956). Occupational Choice: A Conceptual Framework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9, 531-543.
- Borg, Rosanne (1996). Factors determining career choice. *European Education*, 28(2), 6-15.
- Carruthers, T. E. (1968). Work values and chosen careers: Note on a trial of an American work values inventory with British subjects. *Occupational Psychology*, 42, 111-117.
- Centers, R. (1949).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1-152.
- Davies, J. G. W. (1950). What is occupational success?. *Occupational Psychology*, 24, 7-17.
- Dose, J. J. (1997). Work values: An integrative framework and illustrative application to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 219-240.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ar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217.http://science.purdue.edu/careers/career_development/wholamcontents.pdf
- Kirkpatrick, J. M., & Glen, H., E. (2002). Educational pathways and work value trajectories. *Sociological Perspectives*, 45(2), 113-138.
- Pryor, R. G. L. (1980). Some types of stability in the study of students' work val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146-157.
- Rokeach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57). *Occupation and values*. Glencoe: The Free Press. 6-7.
- Smithers, A. (1968). Som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tudents in a Technological University II. Occupational Values. *Occupational Psychology*, 42, 231-238.
- Smithers, S., Catano, M. Sc.M, Cunningham, D. P. (2004). What predicts performance in Canadian dental school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8(6), 598-613.
- Super.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 Y.: Harper Brothers. 298-300.
- Wood, D. A. (1981). The relation between work values and the perception of the work sett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5, 189-193.
- 1 차원고접수 : 2007. 10. 01.
수정 원고접수 : 2007. 11. 09.
최종 게재결정 : 2007. 11. 14.

Korean Dental Students' Occupational Values for the Dental Profession

Kim, Dong-Kie

Dept.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Lee, Young-Hee

High-tech Dental Care
and Human Resource Training Project Cor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ccupational values of Korean dental students. Data were obtained from 270 dental students in department of dentistry at Chosun university and 217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 return rate of 81.5%). Categories included sex, grade of student, hopes on pursuing a career after gradu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6 items with 4-point Likert-scale responses. The 16 items were categorized into 5 factors including autonomy, economic security, working conditions, self-realization and social values.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by SPSS. Results are as follows. Autonomy ranked first out of the 5 factors of occupational values. Next was economic security, followed by working conditions, self-realization and social values. The mean score for male students' autonomy value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but the mean score for female students' self realization valu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self realization, but results were the opposite for other values. Dental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scored higher on occupational values than the others. Dental students who hoped to complete the training course after graduation scored higher in autonomy value than students who hoped to open dental clinics. Many of the dental students were more concerned with the values of autonomy and economic security than with the social values of the profes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some programs that strengthen the internal values of the dental students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 Occupational values, work values, dental students,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